

“설립정신 되새겨 불교대중화 확산”

20주년 맞는 대한불교 진흥원 권오현 사무국장

지난 75년, 국내 교지의 사업가 고 장경호 거사가 사제 30억 6천만원을 내놓아 설립한 대한불교진흥원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진흥원은 불교중흥을 위해 각종 단 및 신영단체의 사업을 지원해온 등 한국불교사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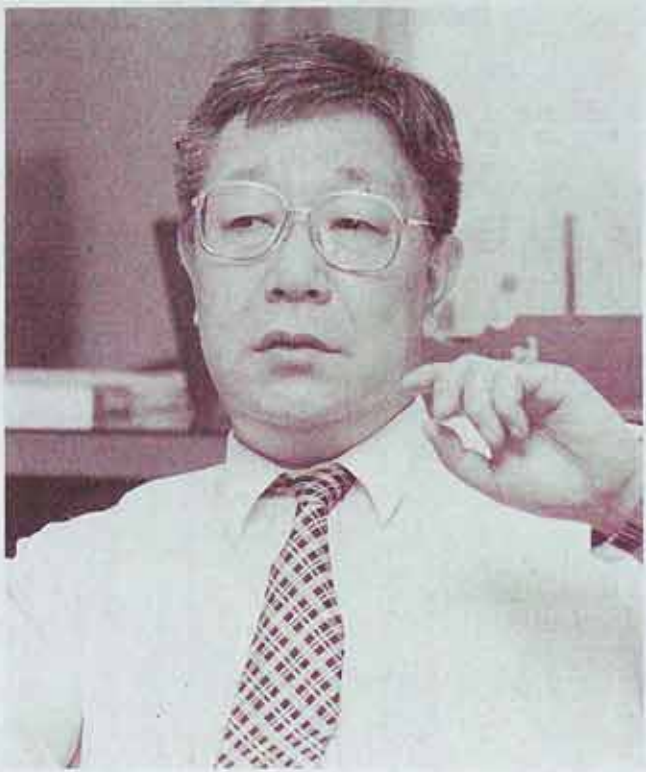
진흥원의 살림을 맡고 있는 권오현 사무국장은 대원회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고 장경호 거사가 발원한 대중불교운동에 앞장서 왔다.

진흥원 설립 20주년 기념행사 준비로 바쁜 가운데 권오현 사무국장을 만나 진흥원의 발전과 전망을 물었다.

2부임사무관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실무직을 맡아 한달만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진흥원은 설립자의 유지에 따라 '불교중흥이 민족의 얼을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으로 방송, 군포교, 학술, 교육, 출판 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출판되는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은 불교와 현대사회 진전에 걸친 관계를 조명해 놓아 기대가 큼니다. 이처럼 진흥원은 일반 단체인 개인이 하기 어려운 귀중한 일들을 해내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일들을 추진했는지요.



수요 인터뷰

장경호거사 유지이여

—진흥원의 설립 20주년을 축하합니다. 기념행사는 어떤 것이 준비되고 있는지요.

▲본래 진흥원의 설립일자는 75년 8월 16일입니다. 이에 설립자인 장경호 거사가 일반에 들어 오는 9월 17일 추모법회를 기해 기념행사를 열릴 예정입니다.

▲진흥원은 한국의 불교중흥을 이룩하는 일에는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진흥원은 단체인영비, 군포교 활성화, 세미나등에 총 1백43건을 지원했으며 불서보급으로 통일불교성경, 설립자료집, 한국불교총람, 계간 '다보' 등 30여종 6만부를 발행 보급했습니다. 또한 불교방송지원, 다보수련원 건립, 불교문화센터 및 다보법회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중흥 민족중흥’ 방송국 설립·군포교 지원 복지타운·출판문화센터등 수익사업 병행추진

특히 3년간 준비해온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오는 22일 출판기념회를 갖게되어 뜻깊은 20주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년은 강산이 두번 바뀌는 짧은 기간인데 이번엔 역사를 정리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흥원의 설립배경과 정신은 무엇입니까.

▲진흥원은 20년전 고 장경호 거사가 당시 박정희대통령에게 불교중흥과 개혁을 위해 써달라는 요청의 권지와 함께 헌납한 정채를 바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구태회(진흥원 초대이사장) 당시 제

특히 군법당 20여동 청전과 군법사용 승용차 오트바이 50대를 증정하는등 군포교에 지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밖에도 지방순회법회, 대중불교결사등 불교대중화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진흥원에 와서 대원회에서 대중불교운동을 전개하면서 진흥원과 오랜 인연을 맺었다고 하더군요.

▲대원회도 72년 진흥원 설립자인 고 장경호 거사가 설립했습니다. 대원회에서는 불교교양대학을 주축으로 전국적인 결사운동을 펼쳤습니다. 진흥원의 지원으로 불교대중화 현대화 생활화를 내걸

고 지방순회법회를 열어 지역불교대학 설립 불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지방에서 모시기 어려운 강사들을 모아 열영에서 한달씩 전국을 순회하며 교양대학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3년을 하거나 지방에 1백여개의 지회가 결성되어 전국적인 대중불교 결사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진흥원에서 전개하고있는 불교대중화는 대원회에서 토대를 닦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 판단되는 사업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이자리를 빌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란 누구나 아까운 것입니다. 진흥원은 평생 모은 것을 불교발전을 위해 내놓은 정채로 설립되어 10원한장 헛되이 쓰여서는 안됩니다. 진흥원의 지원으로 불사에 임하고 있는 불자나 단체는 진흥원 설립자의 유지를 생각하고 유자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진흥원은 많은 사업을 펼쳤고 한국불교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진흥원은 앞으로 사업을 계속 확대해 가위해서는 수익사업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지원사업과 사업의 직접운영, 그리고 수익사업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불교전반에 걸친 장단기 사업 추진을 위해 불교발전연구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교수련원건립에 이어 종합복지타운을 추진할 것이며 출판 문화센터 대중교화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헛되이 쓸수 없는 정채

—진흥원의 실무책임자로 일을 하다보면 많은 단체인 개인의 지원요청을 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진흥원이 불사를 지원하는 곳으로만 알려져 어려움도 만만찮을 텐데요.

▲사실 한달만 수입건의 지원요구가 들어옵니다. 때로는 '발견되는 것을 달라는 식'으로 유박지르는 경우도 있어 당혹할 때가 있습니다. 진흥원은 사업별로 전년도에 미리 예산심의를 마칩니다. 특별 사업도 수시로 이사회의를 열어 결정합니다. 이런 점들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불교중흥에 타당성이 있다

이준업 기자

나의 수행일기

김병조 (본명인)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에는 어디든 사람이 있다. 산사에는 우리 민족의 땅이 배인 진한 향취가 있고 선조들의 탁월한 지혜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미래를 밝게 해준다. 도시에서 분주히 살아가면서도 항상 부처님이 계시는 산사를 생각하면 마음은 녹차처럼 향기롭워진다.

절은 부처님이 계신 엄숙한 곳이지만 평화로움 이면에는 치열하게 구도에 열중하는 스님들이 계시어서 나도 모르게 생활의 활력을 보충받는 것 같다.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참배를 올리고 나면 마음의 썩어진 것이 씻겨져 맑아진 것을 찾는 마음은 그 자체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수행의 하나이다.

그래서 매년 여름이면 간단한 짐을 꾸리고 아내와 함께 며칠동안 산사를 돌아다니며 부처님께 참배하고 마음을 가다듬는다.

이번 여름에는 마이산 탐사와 지리산 대원사, 조계산의 선암사 송광사를 다녀왔다. 특히 이번에 처음 가본 순천 선암사에서는

상 백암사가 큰 자리로 남아 있다

이러웠지만 민정당 사건이 지역적인 감정 문제에까지 파급된 상황에서 고요한 참배객에게는 갈 수가 없어서 사산 개암사를 찾았다. 평가가 내릴 무렵 사람이 아무도 없는 법당에 들어가 1백 배 정진을 하고 유연하게 부처님 개공불사에도 동참하게 됐다.

저녁에 잠이 들어 꿈을 꾸는데 부처님의 서기가 내 눈으로 들어온 것이 보이고 관세음보살님도 나타나셔서 불을 한바가지 퍼서 마시라고 주셨다. 잠소수 있는가 보다.

다음날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알 수 없는 새로운 생각이 들었다.

다시 돌아와 예전처럼 일을 시작했다. 과거의 한생각을 떨쳐버리니 가볍게도 일도 잘됐다.

절이 마음의 중심적 지주가 된 나는 시간

어떤 일이다 '관세음보살'로 시작

전국사찰 두루 참배... 후배에게도 겸손 일러줘

30대로 거리를 뚫은 특이한 가발머리가 웅장하게 느껴졌으며 원통각과 5조보살을 보아서인지 지금까지 짜릿함이 자리하고 있다. 사찰을 찾는 것이 부처님에 대한 경배와 문화관광의 복합적인 마음이 있지만 가면 갈수록 조용한 사찰이 없어지는 것 같아 놀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이렇게 절을 찾아다니는 6년 동안의 생활이 이제는 전국의 웅만한 사찰은 거의 돌아다녀야 참배한 것 같다.

내가 본격적으로 절을 찾게 된 것은 별다른 뜻없이 참가하여 큰 불의를 준 '민정당 사건'을 겪고 운동과 마음이 피폐해지면서 부터이다. 세상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상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다.

돌아와서 절을 찾고 있을 때 어머니 말씀이 귓가를 스쳤다.

어머니는 16세에 대가집 종손력으로 시집을 왔는데 10년이 넘도록 손이 없었다. 그 무수한 세월 동안을 장성 백암사에 가서 부처님에게 기도정진 하였는데 그것도 10년만에 부처님 오신날 전날 내가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인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백암사목을 늘 바라보곤 했는데 나에게 항상 화두처럼 주신 말씀이 '너의 정신적 고향은 백암사니 백암사목을 볼 때마다 항상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인지 내 마음에서도 향



이 날 때면 항상 절을 찾고 한달에 한 번은 삼각산 도선사 석굴전에 가서 가족 모두가 1백 배 정진을 함께 한다. 그러다보니 가족관계도 화목해지고 아이들도 착하게 성장하는 것 같다.

절을 찾는 것과 함께 이제는 불자로써 부처님 말씀에 충실하려고 노력한다.

다악간의 두려움이 밀려드는 공연 시작무원이나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부처님께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언제 어느곳에서나 시간만 내면 절을 찾는다. 불교방송에 갈 때 도 절에 가는 마음으로 가니 더 빨리 가고 싶고 스튜디오에서도 절에 있다고 생각하니 방송도 잘되고 생활이 즐겁다. 언제나 부처님을 찾으니 또한 부처님의 기쁘다고 생각한다.

또 불교방송과는 계속 더 많이 인연을 맺고 있는데 개국일과 내 생활이 같은 것도 어떤 인연의 끈으로 맺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보법당 엘리베이터에 걸려있는 '금주의 법구' 한마디도 일주일을 청량하게 해준다.

방송국 코미디언실에 가서 후배들이 새로 들어오면 부처님의 가르침인 재명무상과 생로병사를 얘기한다.

희련한 직업일수록 인기가 없을 때를 생각하며 겸손하고 할심하려고 당부한다. 인기가 있는 것도 영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후배들에게 타이르며 나 또한 불자로써 겸손하게 살라고 노력하고 있다.

- 75년 7월7일 장경호거사 사제 30억 6천만원 헌납
- 75년 8월16일 법인설립(초대이사장 구태회)
- 76년 군법당건립등 불교진흥사업공식시작
- 78년 불교성경등 불서간행 보급시작
- 80년 2대 합산덕 이사장 취임 83년 도성선원, 공단선원개원
- 87년 불교방송개국 정부추천에 요구
- 88년 다보회관 개관, 통일법요집 출판 89년 3대 장상문 이사장 취임
- 90년 불교방송개국 91년 계간 '다보' 창간
- 92년 불교종합수련원 착공, 2대 서준각 이사장 취임
- 93년 통일불교성경, 설립지정서, 한국불교총람발행, 불교문화센터직영
- 94년 과산 다보수련원 법당 준공

진흥원 20주년

세계正和를 추구하는 正道(本性)通一 선포문

본성의 무한성을 정각한 경지에서서야만 비로소 모든 것이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가 일체(一切)로 개별이 보편이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가망이 그 심통(性通), 건성(見性), 숭성(率性)하여 그 '明明人中天地', '真空妙有', '無極而太極'으로 다같이 聖者로 되는 正和세계로의 本元的인 대각성의 일대전환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불교의 그 불살생, 불무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의 5계와 10계 정신도 그 인과의 보를 받지 않게 함은 물론이지만 본 목적은 바로 자비, 복덕, 청정, 성실, 지혜 등 본성의 덕을 행하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며, 비록 중독된 차원이 다른지언정 유·불·선 3도의 공통성도 다름 아닌 이 본성인 것일진대 본성의 속성인 '초월성'을 지니지 않는 교(教)란 종교가 못 되는 것이다.

생명과 우주의 실상을 남김없이 정각했을 뿐 아니라 천차만별의 중생들이 오직 그 자업자득의 인과응보로 받게 되는 저 지옥고마저도 끝내 구제하시는 人天의 大導師이시고 중생의 관아시며 구세대신이자 우리들의 완전한 신자이신 그 분을 이외에 그 감사, 공경해야 할 최상의 지표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이기. 어찌하여 영원히 새로운 이 만고의 正道에 간절한 마음을 내지 못하고 있던 말인가!

기려여! 인류여! 모든 神들이여!

'자이'로 전락되어 있는 각자의 지발적인 그 모든 의식차원을 무아적인 本元으로 크게 영원히 돌리는 본성자각의 공력으로 그 거룩한 동질일체성에서 인간끼리는 물론, 人도 神도 다함께 진실으로 화경(和敬)되는 가운데 넉넉하고 신나는 대우화의 一元대도의 새文明세계를 이룩하지 않으려는가?

1. 각자의 무한생명성을 자신, 자라, 발휘할 때를이거늘, 그 무슨 경쟁, 부쟁이 있겠으며, 투쟁이 있다면, 자기와의 투쟁일 뿐인 것이므로, 그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민족주의와 세계주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등의 온갖 이념들과 모든 종교들이 모든 분야에 걸쳐 모든 문제들에 있어 다같이 본성주의에 의한 자기보완과 자체공경(正敬)이 되어야 하며,

2. 이념과, 생명적인 '본능'은 본능이 아니라 오직 본연한 본성만이 참본능인 것이므로, 자각 없는 자유와 일률적인 평등이란 악자유, 악평등일 뿐이며, 저 관능적, 유희적, 이기적인 향락추구는 비단 인과응보로 받게 되는 고통에 그치지 않고 청정한 본성음 크게 해치게 되는 변도 아울러 사무치게 깨달아 크게 참회하고 개심함이 있어야 하며,

3. '심령주의'에 있어, 그 영혼이 명백(明瞭)로 형성되어 있는 것도 역시 스

스로 형성된 '자이'에 불확한 것임을 각성하여 마땅히 무한성을 회복하여야 하며,

4. 불교에 있어, 3계(界)를 초탈한 모든 '불세존'이 '비구', 신분 아닌 분이 없다는 사실만을 보더라도, 부처와 보살, 출가보살과 계가보살은 차별이 분명한 가운데 평등해야 하는 것이고, '心佛及眾生 是三無差別'은 화엄경 원연의 잘못으로서 그 본뜻은 '부처와 중생이 다같이 마음으로 되어진다는 점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이며, 원각경의 '本來成佛'의 대목도 다만 '본연한 불성(佛性)'이라는 뜻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교단은 모를지언정 어찌 하든 6화경(和敬)법에 의하여 정화, 통합이 되어야 하며,

5. 기독교는 예수님의 13세 이후, 16년간에 걸친 인도방면 구도경각 발가의 티베트에서의 라마교(불교) 수행에 의한 '법신불'의 가피로 비로소 영혼의 도를 얻게 된 영적 그대로를 공인(公認)하고 선행해야 할 것이거늘, 어찌하여 '구약서'의 그 '창조신의 뿌리를 끊지 못한 채 그 '미움 아니 사랑' 등의 양극성의 원초(元祖)적인 것들, 배타의 투쟁신의 도구되기를 애원해야만 하는가? 모든 기독교도들은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 正道로 돌아와 종교적인 통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6. 유교는, '중용'의 그 '天命之謂性 性之謂道'의 본지대로 공공적인 제도(制度)에 치중해야 하거늘, 어찌 인간과 그 행동 등에 편척됨으로 인하여 도리(道)가 부모와 스승들의 리교독락(離苦得樂) 내지는 중생제도에 미혹하게 되고 마는가!

7. 선(道)교에서는 '性命雙修 齊化齋仙'의 무위자언으로 인간과 天仙 차원에 그쳐서는 가없는 중생제도에 미혹하지 않는가!

8. 통일교에서는 그 주·핵으로 천하의 차원에 불과한 세속적인 음, 양의 현상계에서 인간과 육계천(慾界天)에 머물러 있는 격에 그쳐서 있고 그 '신령'을 넘은 본성계로 승화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9. 중산도에서는 그 '4대종교의 정수를 뽑아 모은다는 교칙'에 있어 그 종교적인 영원한 참된 자유와 최고의 행복으로 이끄는 공공적인 이상이 무엇이었다 말인가! 모든 형성자들이! 다함께 각자의 텅 비어 가 없는 그 한 걸의 동체(同體) 대비력을 그치지없이 발휘하시라!

단기 428년 중복절

대한민국 공주시 계룡동 산 60 김사 대자암내
인생관 바로 갖기 세계화 제창자 零議 都月惺